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_시간



강규형

(현) (주)3P자기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현) 독서포럼 '나비' 창립자 및 대표
 (전) yCBMC 총연합회장
 (전) 푸르덴셜 라이프플래너(MDRT 3회 연속 달성)
 (전) 이랜드그룹 푸마사업본부장

신입사원 시절, '불만파노' (신입 시절 근무하던 브랜드 이름이 '브렌파노'였다.)라는 서클을 만들어 동기들과 무리지어 다니던 적이 있었다. 대학 때 열심히었던 운동권 생활의 연장으로 회사에 노조를 만들겠다는 민중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던 중 회사의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고, 회사와 업무에 충실하게 되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 입사 3년차 주임 시절에 옷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맡은 금액이 판매가로 430억이나 되었다. 아침 6,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일의 특성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기 일쑤였다. 한번은 선배가 면바지는 반드시 직접 빨아 보아야 한다고 충고해줬지만, 너무 스타일이 많고 바빠서 한 스타일을 미처 빨아보지 못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생산이 완료되고, 매장에 풀려서 완판이 될 만큼 잘 팔렸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일주일이 지나자 리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지 길이가 7센치나 줄어 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자그마치 3억... 그 당시 연봉으로 커버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필자는 '성과'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간을 잘 계획하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주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야 할 업무를 기록하고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른바 시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그

92 주간업무계획표

기간: 4/13 - 4/18

강규형

계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Event	기초교육 · 6시 퇴근	· 수석회의 · 사원회의	· 상임간이 · 견학 · 신주 간이		· 강의 · 견학 · 2(9차)	· 성경공부
7	기초교육	보통 회의	· 상임간이		· 신주출근	· 성경공부
8			· 견학			
9	· 활동보고	· 팀 회의	· 견학 (4차)		· 상임간이	· 주간회의
10			· 견학		· 안 의	
11	· 업무 방안	· 업무회의				
12		· 팀	· 팀	· 팀	· 팀	· 팀
1						(주) (1차)
2	· 견학이해	· 각자	· 견학	· 견학	· 바지공급	· 견학
3	· 각자	· 상임간이		· 견학	· (4차) (4차)	
4		· 견학		· 견학	· 견학	
5		· 견학	· 신주(4차)	· 견학	· 견학	
6				· 견학	· 견학	
7	· 견학	· 견학	· 견학			
8	· 견학 (신주 1차)	· 견학	· 견학			
9		· 견학	· 견학			
평가						

〈사진 - 92년 시간관리를 처음 시작할 당시의 타임테이블〉



때부터 시작한 시간관리는 습관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17년이나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다 보니, 항상 내 능력 이상의 큰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과외 시간을 활용하여 사내 외 많은 행사나 봉사 활동 등에도 열심을 낼 수 있었다. 틈틈이 척추교정, 수화, 스포츠 마사지 등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 훈련, 독서에도 꾸준한 시간을 들일 수 있었다. 그 바쁜 틈을 타 야간 데이트로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며 결혼에 이를 수도 있었다.

다방면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시간 관리'는 필수 과목이 되었다.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사방에 널려있지만, 신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유한하다 못해 부족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시간관리는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필자의 바인더에 있는 주간 타임테이블을 보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사나고 숨막혀 한다. 물론 필자는 숨 막히게 살기 위해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셈이다.

엘릭 매켄지가 쓴 '타임 전략'이라는 책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남이 내 시간

을 휘방 놓으려 하는 스트레스, 약속의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등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 시간관리는 일과 가정, 자신 사이의 삶의 균형을 가져온다.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이나 목표 달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시간관리는 곧 자기 관리이며,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方便인 셈이다.

초 베스트 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저자 릭 워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 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이아몬드나 장미, 초콜렛이 아니다. 바로 관심의 집중이다."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진정한 필수 과목인 것이다.